

제 180 호

부활 제 3 주일

1976. 5. 2.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우리안에 그리스도의 참 평화를!

한 봉 설 신부

예수·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요한 14:27>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한 평화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인류의 평화를 이루도록 평화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뜨거운 사랑에 의한 근원적인 평화로부터 파생해 나온 인간의 평화를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그 성격상 관계개념(나와 너)인 것이기에 먼저 하느님과 나와의 평화이어야 하며, 이러한 종적인 평화가 근본적인 평화임을 알게 됩니다. 종적인 평화는 획적인 평화를 초래하게 마련입니다. 근원적인 관계에서 파생적인 관계로 내려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아직 평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담을 쌓고 있으며, 그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편의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내적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외적인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며, 실속 가능하더라도 참된 평화가 될 수 없음이 확실해 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순서야 아니고서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와의 사이를 자기 희생을 통하여 평화의 사슬로 묶어주셨습니다. 그 높으신 보좌(寶座)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땅에 평화를 수립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와같이 평화가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을 실현하고자하는 나는 개인으로서 많은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내안에 일어나는 모순을 하느님께 향하려는 어떤 근본적인 입장과 이에 반하려는 또 다른 하나의 경향이 내 대립하여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대립이 사회, 혹은 국제화될 때, 그것이 전쟁과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모순은 곧 사회의 모순이 되고, 사회와 국가의 모순은 세상의 대립을 초래하게 된다고 봅니다. 나 개인안에서 어떤 모순이 발생할 때, 그것은 나의 주변에 역시 불안과 모순으로 형성되어 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 우리안에 깊은 사랑과 이해로 분열을 없애시고 일치를 통한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평화는 그 근본 상태에서 나와 당신, 곧 우리라고 하는 사회적 공동체성을 전제한다면 나와 너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참평화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안에서 그리스도를 추궁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며, 우리는 이 아름답고 값진 선물을 얻어 누리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전통 전주교회 보좌신부>

이 주일의 미사 해설

* 부활제 3주일 * (기도서 P. 284-B해)

알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자렛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신자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이 소식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소식 말입니다. 이 미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하심에 기념제입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쁨을 찾아 누릴 줄 압니다. 주께서 우리의 정신을 항상 젊게 만드시어, 부활절의 기쁨을 안고 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3장 13-15, 17-19절 p.270)

-생명의 창조주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느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기억에 놀란 군중을 앞에 두고서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넘겨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예수를 하느님이 다시 살리셨음을 알립니다.

□제2독서 (요한 1서 2장 1-5절 p.542)

-우리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라. -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려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죄인이라면 그분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 (루카 24장 35-48절 p.200)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반드시 삼일만에 부활하실 것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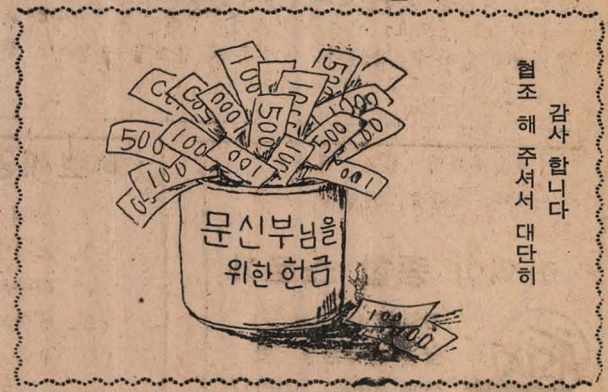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한테 에워싸여, 당신이 왜 죽으셔야 했던가를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더러 온 세상에 가서 그 소식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성체 후 묵상

그리스도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수난하셨습니다. 이제 그 보답으로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상과 당신의 수난을 씻어 잊으시고 부활의 기쁨에 차게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주의 부활의 기쁨과, 생의 희열 속에 행복해 있는 모습을 보고싶어 하십니다.

고통 중에 계시는 문신부님과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순정이 산책



◆부활 메시지◆

부활 축일을 맞이 하여 (2)

지 학 순 주 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광경은 어떠했습니까? 「빌라도」 총독은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마태 27. 18-26) (루카 23. 13-25)

그러나 그는 비겁해서 죄없는 예수님을 석망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여야 할 관리의 얼마나 불의하고 비겁한 행동입니까? 또 3년동안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권력자들의 협박이 두려워서 또 다소의 뇌물을 얻어 먹고 무지막지하게 간악한 권력자의 무리가 남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을뿐이었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도 있을 터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의롭고 무죄한 사람으로 공정한 판단을 받아 석방되어야 할 분이었지만 속세의 아무 배경도 없는 분이기에 때문에 조직적인 악의 세력에 눌려 의롭고 쓸쓸하게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말까지의 죄없으면서도 악인들의 시기와 질투의 희생물이 되어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 「바라사이파」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하는 악한 권력자들을 대표해서 무죄한 하느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악한자들의 기만과 협박에 눌려서 의인을 죽이는데 가담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최대의 인생연극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바른길을 걸어가야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약삭바르게 현세적으로 손해없이 사는 것이 훌륭한 것도 아니요, 지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신길이 바로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토 2.8) 신앙생활이란 평안하고 좋을 때, 또는 교회를 이용해서 현세적인 이익이나 얻을 수 있을 때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인생생활의 장식이 아닙니다.

피눈물나는 노력으로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심오한 지혜를 알아듣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요, 민란을 일으킨 두적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저 교만한 자들이 무

죄하신 예수님을 그런 자들과 같이 보이려고 하는 위장전술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세상에는 지금도 이런 가소로운 짓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이지요.

우리는 이런 자들과 한짝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고 의(義)를 위하여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의(義)를 위하여 싸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실 때에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 받았든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진리를 받아드리고 세를받고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의 상처를 가진 인간성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인간으로 다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악행에 대해서는 백지같은 사람이 되어 불의한 행위를 하려는 마음을 털끝만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안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정채신이니 유신이니 총화니 하는 많은 간판을 내걸고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부 책임자들이 스스로 먼저 정말 불의와 부정을 완전히 자기 일신에서 씻어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중은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도 열명 합니다.

기만과 억압으로는 신의 국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진실이 있는 곳에 좋은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부활축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종국적인 큰 희망을 주는 정말 기쁜날입니다.

이 기쁨에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악의 모든 때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안에 의식적인 악의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을 때에는 이 기쁨의 몫을 찾지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육신으로 부활하고 싶은 모든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는 본 뜻입니다.

(천주교 원주교구장)

교우들의 선물 센터

전자, 새살림, 기념품, 완구

아세아 종합 스토아



강영욱 (로모알드)

남로 신탁은행 앞

전화 ②4007, ③7007

◎보세공 모집◎(여자)

1. 자격 : 17세 이상

2. 모집인원 : ○ ○명

※수시 모집함

3. 연락처 : 전화 ③3455

전주시 전동성당 골목

김영환 (아오스님)

* 축결혼 *

홍순태 (벨라도) 군과

김연진 (헤레나) 양이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부디 오시어 축복해

주시시오

일시 : 1976년 5월 7일 12시

장소 : 전동천주 교회

주례 : 김환철 신부님

우 리 의 태 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왕국이 이 땅위에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3월 1일 기도회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 성명(76.3.15)을 적극 지지한다.
2. 사회정의 및 인권수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
3. 우리는 3월 1일 기도회에 관련된 사제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을 다짐한다.

1976년 4월 27일

1969년도 사제서품자 일동

영광스런 사제서품을 맞이하여

김 영 구 신부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세대마다 사람들을 불러 그위에 손을 얹으신다. 그는 모세, 이사야, 아모스, 사울등 많은 예언자와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니라”하신 말씀은 지금도 진실하다!

우리의 부름 받은 직책이 아무리 높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세상 유흥에서 온전히 방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제직도 다른 직책에서와 같이 허다한 난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생활은 벌써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수다한 회중의 요구와 기대의 와중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혼란과 미혹에 빠지게 된다. 그는 매 주일마다 산뜻하고도 꾸준한 새 설교를 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광휘찬란 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명쾌한 인물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 중의 사람,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메마르고 가난한 심령에게 인 지도자, 그리고 명석한 조직력으로 교인 각자에게 할 일을 제공하여 교회 행정술에 물설 틈 없이 운영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전적으로 불 부쳐 주며 재정에산애는 수지를 맞추며 신도들을 위로하며 자신은 독서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떤 때에는 요새 젊은이들로서 왜 이런 까다로운 길을 자원하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이다. 그러나 인간의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까지 많은 기대를 걸어 주는 직책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선악간 공중 앞에 이렇게 뚜렷한 전선을 요청하는 직책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잠만 하면 진실로 위대한 사업이다. 이 직책이 어렵다는 데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그것이다. 이 직책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직책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소유, 전 소재를 걸고 들어가 하며 동시에 좀더 잘 되려고 힘써야 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의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올라가는 길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어서 거기에는 멈추거나 돌아설 지점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별다른 인간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요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포기했거나 제단의 계단에 걸려 너머졌을 것이다. 이 제단의 계단은(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며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친교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줄곳 따라 가야 할 것이다.

문정현 신부님 위한 헌금 누계 543,996원, 감사합니다.

해성교 교직원 (20,000원), 중앙성당 (43,395원), 노송동성당 (10,000원)
 금산성당 (10,000원), 상관공소(7,300원), 이수현 신부(10,000원) 젊은 신부님들
 (16,000원), 서학동 익명 (7,000원), 익명 (1,500원)

익산 나한자 촌 공소 신축기금, 장계본당 (13,320원), 서학동 익명(1,000원)

〔祝〕 사 제 서 품 〔祝〕

이 종 원 (全州 海星 中學校 第一回 卒業生)
 김 병 환 (全州 海星 高等學校 ")
 문 규 현 (海星中高 宗教監 문정현神父 親弟)

—전주 해성 중 고등학교
 —전주 해성 중교 동창회

요심이 (144) 김병오

이번 신품성사 받는분이 세분이라지?



그중 두분이 해성학교 출신이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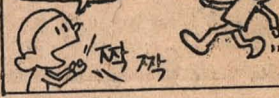


저분의 건는 모습이 어제와는 아주 다르구나

누구 일까?



해성학교 교장선생님이시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입 금 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 원 준(야고버)

불러 주시면
 언제라도

연 탄

어름 신속, 정확, 친절
 배달하겠습니다

이 영 희 (다두)
 ①전주시 전동 성당 골목
 (전화) ② 8 4 6 6

〔축〕

한수옥(韓洙玉 분도)이사장님의 회갑을 축하합니다

기념식 : 5월 8일(토) 12시
 장 소 : 전주 가톨릭 센터

—전주 대전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문정현 신부님, 5월 4일에 제1회 공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서품 및 서임식 (중앙성당에서 - 뜨거운 기도와 많은 참석 바랍니다.
5월 2일 (일) 오전 10시 - 독서적 및 시중적 수여식, 부제 선발예식, 부제서품식 (이종원)
5월 3일 (월) 오전 10시 - 부제 (12명) 및 사제 (3명) 서품식
3. 주한 교황대사 루이지 도세나 대주교 전주교구 공식방문 (5월 6-9일)
교구내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은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목) 오전 10시 반 - 교구청 축성식 (교구청)
5월 9일 (일) 오전 10시 - 미사 및 환영식 (중앙성당), 오후 2시 누갈다 묘지 참배
4. 군옥 4개 본당 학생회 성지순례 5월 5일 (수), 전주 누갈다 묘소
5.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5월 3일 (월) 오후 8시, 가톨릭센터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보좌 신부 김 동 준
 사도 회장 이 상 용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 각 분과 위원장 및 위원 구역회장, 반장님께서 참석 바랍니다
2. 방저거 삼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30분
3. 성심 부녀회 월례회: 5월 7일 어머니 미사 후
4. 문규현 (바오로) 신부 첫미사: 5일 오전 9시 본당에서
● 교향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5. 고등부 춘계 체육대회: 5일 오전 9시 (해성학교 운동장 집합)
6. 주일학교 어린이 춘계 소풍: 2일 오전 9시 출발
7. 성소주일 글짓기, 그림대회 (주일학교 어린이) 5월 8일 오후 3시 경기전에서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8. 본당 자체 전화 번호부 마련예식: 사무실에 전화번호부 신청서가 있으니 신청 바랍니다. <무료봉사>
9. 중학생 미사시작 <5월 첫주부터> 오후 3시 교리후 미사 (4시)
★축 결혼★ 5일 10시 반
임 훈순 (모이세) 군, 박 정숙 (유리안나) 양

4. 반장임명 (금암동 1, 5반) 1반 조진옥 (마리아), 5반 유옥자 (말지나). ● 사도회의 결의서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장님으로 임명 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5. 아이미사: 16일 전당리 공소 저수지 (전능)
6. 주일학교 어린이 소풍: 5월 10시 미사 후 ● 부모님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5월은 성모성월: 목주의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2. 본당 공동체 특상회: 5월 1일~2일 오후까지
3. 반회합: 4일 <화> 5반 은마리아씨며 홍마리아반장 (중앙동), 5일 <수> 6반 박마리아씨며 정마리테레사반장 (고사동 1가), 6일 <목> 7반 박아오스딩씨며 김두가반장 (고사동 2가)
4. 5월 9일 <일> 교황대사 중앙성당에서 환영미사 오전 10시 ※본당미사 새벽 5시반, 저녁 8시 (공식미사 없음)
★축 결혼★ 5일 12시
이 사홍 (보나네푸라) 군, 박상운양 (저녁미사 없음)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박 장 준

1. 사도회 월례회: 10시 미사후, 전원 참석 바랍니다.
2. 교리시간 변경 (중·고등학생): 토요일 오후 6시 30분
3. 학생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4. 교황대사 환영미사 관계로 다음주 상관사도회 없음
5. 오늘은 애령의 주일입니다. 현재 65,763원 입니다.
★축 결혼★ 5월 11시 최정기 (바오로) 군, 강부님 (안나) 양
8일 10시 권택용 군, 강순덕 양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한 철
 보좌 신부 김 한 철
 사도 회장 양 훈 모

1. 교황대사 환영식: 7일 <금> 10시 40분
2. 서품 및 구제품: 3일 (월) 10시, 중앙성당 소순형, 이순성 부제 ● 축하합니다.
3. 다음주일 공식 (10시) 미사: 중앙성당에서
4. 성화회: 10시 미사후
5. 유아세례: 2시 미사후
6. 전례 분과 위원회: 월요일 저녁 미사후
7. 성모 성월중 성가 및 교리가 동대항으로 있습니다.
8. 어린이 성모의 밤 (주일 저녁 7시): 초, 꽃, 묵주준비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사도회, 성모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 후)
구역장, 반장의 빠진없이 참석 바람.
2.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일)
3. 교황대사 본당방문 (7일 오후 5시)
본당 교우 전원 참석 바람.
4. 의자 현금 누계 1646,830원 이아네스 (50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박 종 환

1. 사도회 확대회: 공식미사 후 ● 사도회 임원, 구역장, 반장, 공소회장단은 참석 바랍니다.
2. 신용조합 임원회: 5일 오후 8시: 월례회는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사제서품 및 축하식: 이도마 (종원)
서품일시: 3일 (월) 오전 10시 중앙성당
축하식 및 첫미사: 5일 (수) 오전 10시 덕진성당
● 새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와 참석으로 축하 바랍니다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창 김 계 수 류 신 태 인 읍 정 읍	교황대사 본당방문	15,000원	제 3 지구	주 현 창 인 동 동 황 등	사도회	56,275원	
		성모회 월례회	25,600원			교황대사 본당방문	53,122원	
		5월 사목회	18,471원			사도회 월례회	8,775원	
제 2 지구	대 문 윤 동 명 동 중 동 영 열	사도회 임시총회	6,640원	제 4 지구	중 앙 송 동 진 동 자 동 서 학 동 동 전 동	사도회 방저 거상회	84,580원	
		사도회, 성심회	53,535원			사도회 성모회	35,525원	
		사도회, 부녀회, 월례회	30,770원			사도회 확대회	17,365원	
		사도회, 부녀회, 요셉회	17,100원			본당 공동체 특상회	27,105원	
	용안 성당 신축위원회 개최	15,295원		사도회 월례회	18,460원		성화회, 유아세례	92,895원
제 3 지구	고 산 금 산 여 산 삼 레	수청공소 마리아군단 육외행사	원 원	제 5·6 지구	부 장 진 진 남 남 순 순 임 임	성모 성월 로사리오 기도	6,300원	
		상임 위원회	원 원			미사시간 전에 성당에 읍시다	5,835원	
		공소 회장 월례회 연기	7,215원			L.M.아치에스 행사, 뿌리아회	25,405원	
		자모회 월례회	13,975원				원 원	